

#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연계 완도사랑 건강걷기대회 성료

### 국화로 조성된 완도타워 꽃길 걸으며 힐링



제14회 완도사랑 군민건강 걷기대회'가 지난 26일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완도사랑 군민건강걷기대회'는 완도군 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회장 전이양) 주관으로 전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걷기대회는 '2019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과 연계하여 군민과 더불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까지 총 1천 5백여 명이 참여했다.

코스는 해변공원 특설 무대에서 출발해 완도타워를 거쳐 다시 해변공원으로 도착하는 1시간여 코

스로 진행했다.

이날 찬바람이 불긴 했지만 특히 2만 2천 개의 국화 화분이 전시돼 있는 완도타워 코스를 거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힐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걷기대회 종료 후에는 다양한 경품 추첨과 함께 초대 가수 공연 등이 펼쳐져 축제의 장이 됐다.

한편 완도군은 걷기대회에 참가한 군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완도사랑상품권'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3일 간 진행된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 축제 행사장에서 사용된 완도사랑상품권 금액은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1일 발행한 완도사랑상품권은 지난 28일, 19억 원을 돌파, 20억 원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 주말동안 15만명 관람객 물결



군에서는 KBS특집 공개방송 월출산 국화축제 개장 축하쇼에 민혜경, 김범룡, 김상배, 윤태규, 현진우, 김양, 유진표, 조은하 등 초청가수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어 관람객의 흥을 한껏 북돋아 주었다.

또한, 국립공원 월출산과 연계한 단풍 트레킹, 용추폭포 단풍 나들이, 감성미션 스탬프 투어, 국화꽃길 보물찾기 등 참여행사를 마련해 관람객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국산랜드 축제장 전역에 국화차 시음회, 국화꽃 플라워아트 체험, 가족 캐리커처 드로잉, 풍금이 있는 추억의 교실, 가을편지 쓰린우 체험, 기차 문방구, 활기충전 건식 족욕 체험, 전통주 시음회 등을 배치하여 국화 향연과 참여·체험

사를 즐기는 공간을 만들어 관람객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주말동안, 15만명의 구름인파가 몰리면서 축제장 내 향토음식판매관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영암 청년 플라마켓, 맛있는 푸드트럭, 달마지쌀 떡매치기는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대부분 재료가 소진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국화꽃이 만개하고 국향 버스킹, 월출산 가을낭만 콘서트, 전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사랑품은 국화프러포즈와 대표 프로그램인 '국화 꽃마차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영암=조대호 기자

## 장성군,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대상자 추가 모집

### 내달 8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장성군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참여할 청년 취업자 및 기업을 11월 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

장성군은 2010년부터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행 이래 최대 규모로 사업대상을 확대해 현재까지 15개 기업과 22명의 청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은 7명이다.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으로 확정되면, 1년차에 청년 300만 원, 기업 200만 원을, 2년차에는 청년 300만 원, 기업 150만 원을, 3년차에는 청년 400만 원, 기업 150만 원을, 4년차에는 청년에게 500

만 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1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신청자격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장성=박종영 기자

## 함평군, 2020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함평군에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도비 7억 5천만원, 군비 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20년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보면 용산리에 조성된 해보농공단지 인근의 국·공유지로 1.5ha의 면적에 조성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전문가를 통한 수종선택 및 조성계획은 사전 심의를 받아 추진한다.

함평=김평준 기자

## 진도군, 2020 시책발굴 보고회 개최

### 110건 정책 발굴

진도군이 지난 28일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책은 110건으로 농어업, 관광, 지역개발 등 분야별 역점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이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테마파크 투자유치,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진도읍 구도

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생통사랑 자립이 교실 운영 등이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효과가 높은 시책은 세부적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유사·중복사업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발굴한 신규시책과 역점사업 등은 사업별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진도군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민선7기 3년차를 맞이하는 2020년에는 계획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며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로 실행력을 높여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강진군, 청년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



강진군 청년일자리카페 청년 취업 교육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진청년일자리카페 운영사업 수행기관인 강진온벗교육문화공동체의 인솔 아래 지난 25일부터 2일간 현장 교육이 실시

되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운영 프로그램으로 제과·제빵과정, 수제맥주 제조 과정 등에 참여한 20명이 참가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남천동 일대의 빵집 테마거리의 '시엘로'와 직접 만든 수제맥주로 유명한 '와일드 웨이브'의 양조장 투어, 전시와 공연을 하는 F1963 복합문화공간을 방문하였다.

남천동 '빵집 거리'는 공장에서 획일적으로 만드는 빵과는 달리 맛과 눈을 사로잡는 경쟁력을 갖춘 빵집들이 들어서면서 변모한 곳이다. 프렌차이즈 빵집이 전국 골목을 장악하고 있는 요즘 동네 빵집의 소소한 매력에 고유의 개성과 특징이 느껴지는 다양한 빵집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양조장 투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와일드 웨이브'를 견학했다.

와일드 웨이브는 아시아 최초 사우어(sour) 맥주 전문 양조장으로 시골하면서도 열대 과일향이 나는 독특한 맛이 장점으로 14가지 수제맥주를 바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